

법회 안내

거원정사 포교원(02)379-6940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 매월18일(음) 오전11시
교리법회 매주 화 오전10시30분
기초교리법회 화 저녁8시30분
건강법회 마지막 일 오전10시30분
불교문화포교원(02)308-9520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문화법회 매월 넷째 일 오후2시
주부문화교실 셋째 금 오전11시
어린이창작교실 일 오전10시

총은사(02)822-1990

초하루법회 1~3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15~18일(음) 오전10시
가족법회 첫째 셋째 토 오후7시
보리사(02)562-9939

초하루법회 1~3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신도법회 매주 화 오전10시30분
어린이·종교생활의 일 오전10시

여의도 포교원(02)784-9136

신도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경전공부 목·일 오전10시30분
관음사(051)205-0069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관음화생회 매주 토 오후3시
보통선원회 첫째 셋째 일 오후2시
금강경각회 매주 수 오전11시
한정법회 매주 목 오전11시
송림사포교원(0694)857-2328

초하루법회 1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종·고등법회 토 오후3시30분
청년법회 매월 첫째 일 오전10시
대승심인당(042)282-5918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원효사포교원(0416)55-255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법니 불교학원법회 일 오전11시
동린 불교학원법회 일 오후9시
공주 불교청년법회 수 오후7시
보림사(0667)763-1192

초하루법회 1일(음) 오전10시
보림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종교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청년화법회 매주 일 오후7시
동원정사(0346)593-7584

초하루법회 1일(음) 오전11시
자비법회 5일(음)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학술·문화·출판등 각종 사업전개

천태불교문화연구원 이재창 초대원장

“한국불교 전반의 연구와 천태문화가 현대사회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달 27일 발기인모임에서 천태불교문화연구원 초대 연구원장으로 위촉된 이

을 11월 세계기념강연회 열어

재창교수(천태종 금강불교대 학장)는 지속적인 국·내외 학술세미나로 한국불교발전에 이바지하고 천태학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천태종이 종단의 사세에 비해 학술적인 부분을



받기인 모임을 가진 뒤 오는 11월 공식개원과 함께 인제대 동문사에 연구원 사무실을 마련해 연구에 매진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권 통일부총리 예방받아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달 28일 권오기 통일원 부총리의 예방을 받고 종교계의 북한수제민지원에 대한 환담을 나눴다.

지장·시암탱화 점안식

현호스님(송광사 서운분원 법륜사 회주)은 지난 3일 법륜사 지장전에서 지장 후불탱화 및 시암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은혜사 주지 진산식

법타스님(은혜사 주지)은 지난 3일 은혜사 금강암원에서 진산식을 가졌다. 이날 은혜사는 지장전

에서 미진했다”는 이원장은 이를위해 본격적인 천태불교학의 정립을 위한 세계기념강연회를 올해 11월 개최하고, 한국불교를 총망라하는 주제로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를 내년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천태불교문화연구원 연구·문화·출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원은 당분간 금강불교대학에 두고 맞차려

동대직원 350명 연수

법산스님(동대 정각원장)은 지난달 28~30일(1박2일)까지 동대 신입 교수직원 및 전제직원 350명을 대상으로 직지사에서의 연수회를 열었다. 철저한 산사 수행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회에서 종립 동국대의 건학이념과 참불자로 거듭태어날것을 당부했다.

수국시서 '불교와 문학' 특강 고은씨(시인·본지 논설고문)가 오는 18일 오후2시 수국사 황금불교교양대에서 '불교와 문학' 강연을 한다.

뉴질랜드 포교원회 이민 인증서법사(전 해동고 교법사)는 뉴질랜드 현지의 조기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포교를 위해 이민수속을 밟아 지난 5일 출국했다.

인사

중앙승가대 △기획실 장 원정스님 △교학국장 미동스님 △기획국장 최희스님 △사무국장 박상근법사

계시판

▲자원봉사자 모집=송파제가 노인복지센터는 거동 불편한 노인 수발 및 말벗이 되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03-3677

▲교사·시설장 모집=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남)은 어린이집에서 일할 시설장 1명과 교사 5명을 모집한다. (032)325-2161

▲어린이 수행학교=광주 선덕사(주지 행법)는 오는 21일~23일까지 지리산 화엄사 일대에서 제4차 어린이 수행학교를 연다. 062)263-4660

▲법사 하계수련회=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묘봉)은 오는 25일~27일까지 충남 공주 신원사에서 법사교육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한다. (02)720-1836

▲조계종 행차교육=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은 제11기 행차교육을 오는 8월31일부터

9월22일까지 합천 해인사에서 실시기로 하고, 7월22일부터 31일까지 각 교구본사와 교육원대에서 제4차 어린이 수행학교를 연다. (02)732-4923

이전 진각종 신촌심인당이 지난달 20일 마포구 서교동 459-10번지로 이전했다. (02)334-1398

한상린기획실은 최근 사무실을 중구 필동1가 51-11 하나빌딩 901호로 이전했다. (02)267-8101

전주대사승놀이 판소리 정원 주운숙씨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제 마음을 잡아준 것이 참선입니다. ‘이것이’ 화두를 매일 30분씩 들었어요.”

지난달 20일 개최된 제22회 전주대사승놀이 전국대회에서 판소리명창부문 정원(대통령상)을 수상한 주운숙씨(43, 법명 법일화)는 불안과 강박관념을 없애주고 마음의 평정을 찾아

“참선·108배 씬없는 연습 결실”

준 참선과 108배 염불정군이 큰 대회에서 차분히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돼 주었다고 말한다.

33세에 입문한 늦깎이 소리꾼으로 시작한 주씨가 수십년 풍부한 쟁쟁한 소리꾼들을 물리치고 최고상을 차지한 데에는 남도명창이었던 아버지(주광명)의 훌륭한 지도와 피가래가 나와도 쉬지않고 연습에 몰두한 끈질긴 근성의 결과이다.

주씨는 이번대회에서 심청가를 불렀다. 이는 김연수 선생으로부터 오장수 이일주 명창으로부터 내려오는 통조제의 맥을 이은 것. 또 대구의 이

명희명창(판소리 흥보가부문 무형문화재)에게는 흥보가를 배웠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소리연습을 하는 주운숙씨는 소리의 불모지 대구의 판소리변화대를 위해 지난 94년 판소리연구소를 세워 후진양성에 매진하고 있고 대구 돈보스코에세에도 출강하고 있다.

“이제야 소리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진짜 명창소리를 들을 수 있게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운숙씨는 현재 수궁가를 공부중이다.

대구=이윤호 기자



만해스님 열반 52주기 추모제

만해 한용운스님 열반 52주기 추모제가 6월29일 선학원 중앙선원 법당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선학원장 법집스님을 비롯 스님과 대불정회장단, 유가족 등 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해스님의 넋을 기렸다. 이날 만해스님의 유가족으로 딸 한영숙여사가 만해스님의 영전에 헌화했다.



한의학 수호위한 무료의료봉사

대한한의학협회, 민족의약 수호국민운동본부, 대한한의학회회회가 공동주최하는 무료의료봉사가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조계사에서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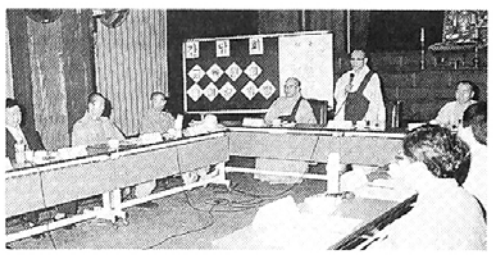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의학 수호운동을 펼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무료진료에는 의료진 3백여명이 참가해 매일 5백여명의 불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서경보스님 영결식 엄수

일부선교종 종정 서경보스님 영결식이 지난 1일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사부대중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암청장으로 엄수됐다. 다섯번의 명종과 월탄스님의 행장소개를 시

작으로 거행된 이날 영결식에서 서경보스님께서 가진 대법사리 16과 두정골사리 6과 두발사리 15과 치아사리 9과 등 83과와 덩어리사리들이 수습됐다.



조계종 '교육원의 방향' 간담회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은 지난 4일 총무원 1층법당에서 '교육원의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총무원장 월주스님 비롯 종법(종장

승가대교수) 도법(실상사주지)스님과 김종희(교육부 사무원) 심익섭(동대 행정학)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 교육원의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불교 5개단체 '삼품감사패' 받아

지난 6월29일 삼품참사 1주기를 맞아 삼품백화점 앞 광장에서 2천여명의 추모객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제가 열렸다. 음악제, 거리행진 등 다양한 추모행사가 펼쳐진 이날

추모제에서는 조계종총무원, 불교자원봉사연합회, 경불려자비회, 봉은사, 관음종묘각사 등 불교계 5개단체가 삼품참사 1주기 추모위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여군사관후보생 임관수계식

여군사관후보생 임관수계식이 지난달 26일 호국원광사(주지 한상길법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는 여군학교

가 실시한 불교교리강좌를 이수한 인경화소위 외 17명의 불자여군사관후보생이 계를 수지했다. 또 기념품 전달식 및 송별다과회를 마련,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생활속의 불교 80

믿음과 실천의 바퀴가 구를 때만이

가령 어머니 뱃속에서 어느 날 자궁문을 열고 바깥 세상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곳이 마냥 따뜻하고 편안하다 하여 머물기만을 고집했다더라면 이름 석자도 없었을 게다.

아늑한 엄마 품에 파묻혀 언제나 젖 먹이로 남기를 고집했다더라면 자라서 소년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가령 부모님의 보살핌이 편하고 좋아서 소년인 채로 있으려 했더라면 어른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아기 집에서는 어머니의 체액을 먹고 태어나는 것을 먹고, 좀더 자라서 부터는 부모가 마련해 주는 음식을 먹는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먹고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기를 낳아 기르게 되며 부모를 봉양하게 된다.

태아에게 세상 모습이 어떻더냐고

물으면 아마도 '사방이 벽'이라고 할 것이다.

젖먹이에겐 엄마의 품이 세상이고 걸음마를 막 떼기 시작한 아기에겐 안방, 건너방이 세상의 전부일 것이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야야 비로소 '세상이 참 넓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불법 수행도 이와 같다. 우리가 어느 때 진리의 가르침을 만나서, 따라 배우기로 마음 먹지 않는다면 새 세상을 구경할 길은 없다. 세상 구경은 커녕 어둠과 답답한 무명의 땀집 속에서 그곳이 마냥 편하고 좋은 줄로 착각하며 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다행히 발심을 해서 새 세상에 얼굴을 내밀었다면 그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또 아기가 어른으로 자라듯이 수행 정진을 해야만 한다.

그러자면 처음엔 누구나 조건 없는 믿음을 지녀야 한다. 젖먹이가 그렇듯이



움과 그릇의 사랑 분별을 떠나서 무조건적으로 가르침을 받아 들여야 한다. 엄마의 젖이 아기에게 완벽한 음식이 되는 것처럼 진리의 가르침 역시 무명을 벗기는 완벽한 도리이기 때문이다.

첫단계를 지나 수행이 조금 익어지면 그때는 스스로 손가락질을 하듯이 그렇게 실천을 해야 한다. 부모가 차려준 음식 상에서 이것 저것 골라 먹는 소년처럼 스승의 가르침, 경전의 말씀 속에서 스스로 행을 통해 도리를 익혀 가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청년으로 자라나듯 수행도 무리먹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남을 가르치게 되고 불은에 보답할 수도 있게 된다.

믿음과 실천의 두 바퀴가 쉬지 않고 구를 때 수행자는 비로소 이 세상이 넓고도 배울 게 많은 참선 도량인 줄을 알게 된다. 지금까지 자신이 몸담고 지냈던 세상이란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

아니라 어둠과 답답한 질곡의 세상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개인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고 때로는 영양 실조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불법에 대한 믿음과 실천의 힘도 제각각이기에 수행의 결과 역시 천차만별이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성인이 되어 자녀 양육과 부모 공양의 도리를 다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제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하듯이, 수행을 통해 대 자유인의 경지에 이르러 남을 가르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치 설익은 밥을 지어 지도 못 먹고 남도 먹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믿음과 실천의 바퀴를 열심히 돌리는 것. 그것은 마치 아기가 자라 건강한 성인으로 바로 서는 도리와 다를까 아닌 것이다.

협찬: 김연수